

문학도시 ‘하이토(俳都)’ 마쓰야마(松山)의 형성 과정에 관한 고찰*

문순희**

munmun103@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3.1 근대 지역 안내서로 보는 ‘하이토’의
창출 과정 |
| 2. 근대 역사도시와 마쓰야마 | 3.2 전후 문학도시 마쓰야마의 계승과 확대 |
| 3. 문학도시 ‘하이토’ 마쓰야마의 창출과 계승 | 4. 맺음말 |

주제어: 문학도시(city of literature), 역사도시(historical city), 시코쿠(Shikoku), 마쓰야마(Matsuyama), 안내서(guidebook), 하이쿠(Haiku), 하이토(Haito), 장소성(placeness)

1. 머리말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 문화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나 건축물을 발굴하고 여기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고 차별화된 장소로 만들어낸 후 이를 관광자원으로 자산화하는 작업은 과거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해왔다. 이처럼 국가가 역사나 문화적 요소를 가진 공간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며 관광여행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장소가 관광자원으로 자산화되어왔다.

예컨대 일본 주고쿠(中國)지방과 시코쿠(四國) 사이에 있는 바다를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라고 부르고 문화적 공간의 가치를 발견한 것은 에도시대 말기이며, 이때 바다 전체를 하나의 ‘내해(内海)’로 보는 개념이 발생하였다. 이후 세토나이카이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은 근대 관광의 유행과 함께 이 지역을 안내하는 안내서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세토나이카이는 1934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의 하나로 지정되었는데, 이곳을 소개하는 안내서에는 자연경관과 더불어 전적과 같은 역사 유적지, 사찰, 그리고 마을의 전래이야기 등 인문학적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43)

**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연구원

경관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공유된 지리적 심상은 대체로 섬과 항구, 온화한 기후, 온천, 전통 산업 등이었다.¹⁾ 이때 안내서에 나타난 지리적 심상은 현재도 크게 차이 없이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지속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근대에 형성된 경관 체계 속에서 당시 발견된 인문학적 장소가 현재도 지방도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본 중소도시 에히메현(愛媛縣) 마쓰야마(松山)가 하이쿠(俳句)의 도시를 뜻하는 ‘하이토(俳都)’ 마쓰야마로 구축되어왔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근대 하이쿠의 발생지로 알려지는 마쓰야마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문학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했는지 마쓰야마에서 발간된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지역을 소개하는 안내서에는 도시의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저자 및 출판자의 의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지역에서 간행된 안내서의 경우 시대별로 다양하게 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의 연속성과 동시에 단절된 경관 등을 추적할 수 있다.

시코쿠에 위치한 마쓰야마를 연구 대상으로 주목한 이유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와 문화적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지방도시이자 역사문학도시이기 때문이다. 현재 에히메현의 현청소재지인 마쓰야마시는 에도시대에는 마쓰야마번(松山藩)으로 15만석의 죠카마치(城下町)였다.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이후 해당 지역인 이요(伊豫)에 있었던 8개의 크고 작은 이요팔번(伊豫八藩)이 여러 번에 걸쳐 통합되면서 형성되었다. 일본의 많은 도시가 그러하듯이 에히메현은 과거 에도시대의 번들이 통합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도 공유하는 향토 인식과 장소성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일본의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방 죠카마치가 현청소재지가 된 마쓰야마의 경우 한 도시의 전통적 향토 의식과 그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쓰야마는 마쓰야마성(松山城)을 랜드마크로 한 죠카마치도시, 도고(道後)온천이 있는 온천마을, 시인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이하 시키)의 출생지이자 근대 하이쿠의 발생지인 ‘하이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이하 소세키)의 소설 『붓짱(坊っちゃん)』과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배경이 된 역사도시이자 문학도시로 알려진다. 실제로 마쓰야마에서는 하이쿠, 시키, 소세키, 붓짱과 관련된 인문학적 장소가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근대 하이쿠의 발생지로 에히메현 내에는 1000개가 넘는 하이쿠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자산이 도시민의 정체성과 마쓰야마라는

1) 橋爪紳也(2014)『瀬戸内海モダニズム』周遊芸術新聞社, pp.4-5

장소성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마쓰야마에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문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근대에 어떤 과정으로 구체화되고 전후 어떻게 그 전통이 계승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근대 만들어진 지역 이미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하나의 사례 연구이기도 하다.

2. 근대 역사도시와 마쓰야마

다음 인용은 마쓰야마시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소개글이다.

우리 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도고온천(道後温泉), 관광객과 시민의 휴식처 도고호쇼엔(道後放生園), 마쓰야마성(松山城)과 니노마루사적정원(二之丸史跡庭園), 인간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한 시키기념박물관(子規記念博物館) 외에도 탁월한 자연과 경관, 그리고 많은 사적, 문화재, 하이쿠 비석을 비롯한 전통 있는 지방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²⁾

위의 인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통 있는(傳統ある)’ 지방문화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마쓰야마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방도시나 마을에서 관광지를 소개할 때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된다. 이는 ‘전통 있는’ 역사를 지닌 도시에서는 그 역사 속 인물과 사건, 그리고 ‘전통 있는’ 사회에서 발달한 문화가 지방의 특색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일본에서 ‘고토(古都)’와 ‘쥬카마치’라고 언급되는 역사도시 중 도시의 경관 자체가 문화로 보호되어있는 지역도 있다. 교토(京都)나 가나자와(金沢)와 같은 도시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도시에서는 오래된 건축물과 거리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경관이 역사의 한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토(古都)’ 교토(京都)와 나라(奈良), ‘신토(神都)’ 이세(伊勢), ‘쇼토(商都)’ 혹은 ‘수이토(水都)’ 오사카(大阪), ‘군토(軍都)’ 히로시마(広島), ‘하이토(俳都)’ 마쓰야마 등 도시의 특징을 한자 두 글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통 있는 오래된 도시로 소개되는 지역은 대체로 역사 속에서 특정 시기의 시대상을 선택하고 특색을 부여한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역사도시들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지방 특색에 ‘역사적 시대’를

2) 本市は、日本最古の道後温泉、観光客や市民の憩いの場となっている道後放生園、松山城と二之丸史跡庭園、人間正岡子規の生涯と業績を紹介した子規記念博物館などのほか、恵まれた自然景観や多くの史跡、文化財、句碑をはじめとする伝統ある地方文化を観光資源としています。(출처: <https://www.city.matsuyama.chime.jp/shisei/kakukaichiran/sangyoukeizaibu/kankokokusai.html>)

배분시킨 것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에 가치를 부여하고 국도라는 공간에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³⁾

이와 같이 개발된 역시도시는 국내외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었고, 각 도시에서 판매된 기념엽서나 여행안내서에 찍힌 여러 장의 대표적 이미지는 해당 도시의 풍경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주요 역사도시들이 국가 주도적으로 구축된 반면으로 지방의 도시들이 정체성을 구축하는데에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말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친 도시와 달리 지방 도시가 역사 경관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보다 늦은 시기로 추정되지만, 지방 소재 죠카마치에서도 폐번치현 이후 이른 시기로부터 전통 있는 도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진회(共進會)를 비롯해 각 지방에서 개최된 박람회이다. 대표적인 박람회인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는 정부의 권업정책 아래 신기술이나 신상품을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신기술을 전시하는 전시회 외에도 각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진열하는 특상품 진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특상품 진열소에는 각 지역의 주요 생상품이 소개되었는데, 여기서 전시된 ‘특상품’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 내무성(內務省)이 주관하는 내국권업박람회 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마쓰야마에서도 일찍이 1878년 마쓰야마 물산박람회(松山物産博覽會)가 개최되었다. 이때 박람회 개최지로 마쓰야마성 공원(松山城公園)이 선택되었는데 당시 성지를 이용한 박람회에는 1872년의 도쿠시마(徳島) 성지, 1873년의 고치(高知) 성지와 마쓰모토(松本) 성지, 1874년의 와카마쓰(若松) 성지, 1875년 고후(甲府) 성지, 1876년 히코네(彦根) 성지 등이 있었다. 박람회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사찰이나 성지와 같은 기존 시설을 이용했는데, 교토가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오서원(大書院)을 개최지로 선택하고 나라가 도다이(東大寺) 대불전(大佛殿)을, 도쿄가 우에노 공원(上野公園)을 선택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⁴⁾ 오로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측면만을 고려해서 개최지가 선택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해당 지역을 상징하는 건물이나 장소가 적극적으로 선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대부분의 성지는 육군성(陸軍省)이 관리하면서 이후의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대여의 절차가 사찰, 신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복잡했다. 성지를 일부러 박람회의

3) 高木博志編(2013)『近代日本の歴史都市-古都と城下町』思文閣出版, p.11

근대 일본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역사도시를 만들어나간 과정에 대해서는 高木博志의 『近代天皇制と古都』(2006, 岩波書店)를 참고할 수 있다.

4) 박람회 개최지에 관해서는 野中勝利(2006)의 「明治初期に城址で開催された博覽會に関する研究」(『都市計畵論文集』41(3), 日本都市計畵學會, p.912)의 표를 참고함.

개최지로 선택한 배경에는 과거 폐쇄된 공간이었던 성과 천수각(天守閣)이라고 하는 권위적 상징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근대사회로서의 변혁을 공간 체험으로 지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성지 내를 공급해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박람회 수용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⁵⁾ 그러나 마쓰야마성의 경우 다른 성지들과 달리 1873년 폐성령(廢城令)이 내려지면서 내무성(內務省) 소관이 되었으나, 이듬해 내무성이 에히메현에 마쓰야마성을 무상으로 돌려주면서 슈라쿠엔(聚樂園)이라는 이름으로 성의 혼마루(本丸)는 공원화되어 개방되었다.⁶⁾ 마쓰야마성이 육군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에히메현으로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천수각이라는 죠카마치의 상징적 공간이 일찍이 공원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었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근대적 도시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지각이 빨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죠카마치를 상징하는 천수각은 에도 말기로부터 메이지 초기의 전란으로 대부분이 소실된 속에서 천수각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전통 있는 역사를 간직한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적 공간 건축물이자 랜드마크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성지라는 역사적 공간을 지역의 특성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고, 역사도시라는 시민 의식을 확립하는데 일종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에히메현까지는 기선으로 오사카(大阪)에서 약 하루, 가가와(香川)의 다도쓰(多度津)에서 약 8시간, 히로시마(広島)의 우지나(宇品)나 구레(呉)에서도 각각 4시간, 3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마쓰야마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시코쿠 섬에 위치했으나, 섬 내에는 1888년 일본 최초의 경편철도가 이요철도회사(伊予鐵道會社)에 의해 개통되었다. 이요철도회사는 1887년 고바야시 노브치카(小林信近)에 의해 창립된 철도회사로 민영철도로서는 일본에서 2번째로 세워진 회사였다. 그는 철도회사 외에도 이요은행(伊予銀行)을 창립하는 등 지역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 다카하마 항구에서 시작되는 철도는 미즈하마(美津濱)를 거쳐 마쓰야마 시내를 지나 두 선으로 나누어졌는데, 그중 하나는 도고온천으로까지 이어졌다. 도고온천은 마쓰야마 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온천지대로 이곳은 만요슈(萬葉集)에 노래가 실릴 만큼 고대로부터 명탕(名湯)으로 이름난 곳이다. 말하자면, 마쓰야마는 일찍이 마쓰야마성을 랜드마크로 한 죠카마치, 고대로부터의 명탕 도고온천, 근대적 교통수단인 철도라는 관광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근대 관광지로서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마쓰야마가 점차 문학적

5) 野中勝利(2006), 앞의 논문, p.915

6) 처음 마쓰야마성이 공원화 되었을 때 혼마루와 함께 니노마루 성지(二之丸城趾)도 공원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니노마루는 1877년 육군성이 매수되었으며, 혼마루도 1887년에 육군성 소관이 되면서 공원이 폐지되었다. 『史跡松山城跡保存活用計画』, <第2章 第3節 歴史的環境>

(출처: <https://www.city.matsuyama.ehime.jp/shisetsu/koen/riyou-iji/hozonkatuyoukeikaku.html>.)

지역 자산을 발견하고 인문학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대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3. 문학도시 ‘하이토’ 마쓰야마의 창출과 계승

3.1 근대 지역 안내서로 보는 ‘하이토’의 창출 과정

1) 1900년~1910년대

마쓰야마는 도고온천이라는 온천마을을 근교에 두고 있어, 그 유명세로 19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출판된 여행안내서에 소개되었다. 도고온천은 에도시대 마쓰야마 번주가 직접 시설을 확충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1894년에 도고온천 본관이 개축될 정도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20세기 초까지 마쓰야마는 도고온천을 설명한 기술 속에서 부가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도고온천의 근교 도시 말고는 장소적 특징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다. 마쓰야마가 자체적으로 안내서를 간행하고 지역 특색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후반이다. 근대 이후 마쓰야마에서 간행된 지역(여행) 안내서는 다음 <표1>과 같다.⁷⁾

<표1> 1900년~1910년대 마쓰야마에서 간행된 안내서 목록

연번	서명	발행연도	편저자	발행처	기타
1	松山道後案内	1904	高濱虛子 외	排書堂	*미발견
2	松山案内 附 道後 高濱 三津 郡中	1909	東草水 編述 高濱虛子 校閱	松山市勸業協會	하이쿠 10구
3	松山案内 附 道後 高濱 三津 郡中	1913	松山市勸業協會	松山市勸業協會	하이쿠 25구
4	伊豫鐵道案内 附 松山道後の栞	1913	相原和一郎	伊豫鐵道株式會社	하이쿠 24구
5	まつやま	1918	松山商工会	松山商工会	없음

7) 본고에서 다루는 1909년판 및 1913년판 『松山案内-附道後高濱三津郡中』는, 1975년에 교시 헤키고도 탄생백년제 실행위원회에서 영인하고 간행한 『復刻松山案内(明治四二年版)-補遺松山案内(大正二年版)伊豫鐵道案内(拔萃)』(松山市教育委員會)를 자료로 함.

마쓰야마에서 간행된 안내서로서는 다카하마 교시(高濱虛子, 이하 교시)가 저술을 담당했던 『마쓰야마·도고안내(松山道後案内)』(1904)가 최초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서의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시의 연표에서 이 책을 메이지 37년(1904) 하이쇼도(排書堂)에서 간행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같은 시기 교시가 마쓰야마의 하이쿠 시인 무라카미 세이게쓰(村上霽月, 이하 세이게쓰)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내서 집필을 준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편지에는 교시가 철도안내서의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이요철도회사에서 마쓰야마와 철도 주변 명소에 관한 하이쿠를 수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이 의뢰를 받으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각 명소 및 산물 등을 읊은 하이쿠가 있으면 오래된 것이든 새로 지은 것이든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이요철도회사에서 하이쿠의 수집 혹은 안내서의 집필을 의뢰받은 교시가 주변 인물에게 편지를 보내 하이쿠 수집에 대한 협력을 부탁했던 것이다. 이때 교시는 구체적으로 아누미신사(阿沼美神社), 도운신사(東雲神社), 호류지(法龍寺) 등의 사찰과 아마야마(天山), 호시가오카(星ヶ岡), 와키가후치(湧ヶ渚), 마사키성지(松前城趾), 의농 사쿠베의 묘(義農作兵衛の墓), 온천(湯の町) 등의 명소 유적과, 벚꽃(十六日櫻), 부상나무(扶桑木), 도베 도기(砥部陶器), 대나무공예, 등의 특산물 등 94항목을 직접 제시하고, 철도 연선 부근의 명소와 그에 대한 설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⁸⁾

교시가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서의 실물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실제로 철도안내가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 마쓰야마 주변 명소 유적과 특산물을 주제로 읊은 하이쿠의 수집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의 틀은 잡힌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빠른 마쓰야마 안내서는 1909년에 히가시 소수이(東草水)가 저술과 편찬을 맡고 교시가 교열을 한 『마쓰야마 안내(松山案内附道後高濱三津郡中)』(松山市勸業協會)이며, 이어서 1913년에 이를 보증개편한 안내서가 있다. 두 안내서의 구성은 시정, 시가의 설명에서 설비, 교통기관, 상업, 재정, 교육, 관청, 회사, 사원, 명소의 순으로 여타 지방에서 간행된 안내서와 비교했을 때 구성 내용에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없으나, 명승지나 특산물을 설명하는 부분에 일부 하이쿠를 게재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더불어 보증개편판이 출판된 같은 해 이요철도주식회사에서 『이요철도안내(伊豫鐵道案内)』라는 안내서가 출판되었는데 이 시기 출판된 세 편의 마쓰야마 안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안내서를 집필하고 교정을 본 저자들이 주로 마쓰야마를 대표하는 문인이라는 점이다. 1909년판의 집필 편집과 교정을 각각 맡은 소수이와 교시는 마쓰야마 출신의 문인이다.

8) 교시가 마쓰야마의 하이쿠 시인 무라카미 세이게쓰에게 보내게 된 배경과 편지 내용에 관해서는 『復刻 松山案内』(虛子碧梧桐生誕百年祭實行委員會, 松山市教育委員會, 1975)에 실린 해제(pp.128-129)를 참고로 함.

소수이는 마쓰야마 출신 시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출판사인 지쓰교노니혼샤(実業之日本社)에서 문필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⁹⁾ 교시는 널리 알려진 하이쿠 시인으로, 마쓰야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하여 활동한 인물인데, 그가 하이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시키를 만난 일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교시라는 배호(俳號)도 시키가 지어준 만큼 그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교시는 1897년 마쓰야마에서 창간된 하이쿠 잡지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를 1898년에 도쿄로 이전시키고 종합문예잡지로 만들어낸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¹⁰⁾ 그가 처음 이요철도회사에서 의뢰를 받았던 1900년대 초반에는 교시는 이미 도쿄로 상경한 이후였으며, 1902년에 시키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마쓰야마를 떠나 도쿄에서 활약하던 교시에게 1909년에 일부러 안내서의 교열을 부탁한 것은 시키의 제자이면서도 소수이와 교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로 안내서 곳곳에 하이쿠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 안내서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1909년의 안내서에는 마쓰야마성(松山城), 엔코지(圓光寺), 이와테지(石手寺), 도고공원(道後公園), 다카하마(高濱), 바이진지하마(梅津寺濱), 다이산지(太山寺), 아침시장(朝市), 히라이역(平井驛), 데아이역(出合驛)을 소개하는 글에 이어 각각 시키의 하이쿠가 하나씩 10구 실려 있으며, 1913년판에는 시키와 함께 교시와 가와히가시 헤키고도(河東碧梧桐, 이하 헤키고도)의 하이쿠가 총 25구 실려 있다. 또한, 이요 철도주식회사에서 출판한 『이요철도안내』에도 시키, 교시, 헤키고도, 세이게쓰의 시 24구가 실려 있다. 다음 <표2>는 세 편의 안내서에 실린 하이쿠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¹¹⁾

<표2> 1900~1910년대 안내서에 실린 하이쿠 목록

하이쿠	작가	장소	마쓰야마 안내 (1909)	마쓰야마 안내 (1913)	이요 철도안내 (1913)
餅をつく音やお城の山かづら	子規	松山城	○	○	○
地うたひの人並びたる袷せかな	子規	東雲神社	○	○	
松風にしぐるる能の舞台かな	虚子			○	
風呂吹を喰ひに浮世へ百年目	子規	圓光寺	○	○	

9) 日外アソシエーツ(2004)『20世紀日本人名事典』

(출처: <https://kotobank.jp/word/%E6%9D%B1%20%E8%8D%89%E6%B0%B4-1653208>)

10) 広本勝也(2008)「高浜虚子の生涯と文学 : 和の楽しみ」『慶應義塾大学日吉紀要 言語・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40, 慶應義塾大学日吉紀要刊行委員, pp.191-212

11) <표 2>는 1909년판, 1913년판 『마쓰야마 안내』, 그리고 『복각 마쓰야마안내』의 <마쓰야마시와 그 주변의 하이쿠(松山市とその周辺の俳句)>(pp.124-127)에 정리된 『이요철도안내』속 하이쿠 목록을 참고로 표로 작성한 것이다.

摂待の札所や札の打ち納め	子規	石手寺	○		○
南無大師石ての寺よ稲の花	子規				○
通夜堂の前に栗干す日向かな	子規			○	
接待の剃刀を取る夫婦かな	虚子			○	
摂待や暫く想ふ老一人	虚子				○
摂待の寺賑はしや松の奥	虚子				○
石手川重信川の青田かな	虚子				○
水草の花まだ白し秋の風	子規	道後公園	○		○
公園の借馬に乗るや春の風	碧梧桐				○
花咲いて同郷会のマッチかな	虚子			○	○
栗の花こぼれて居るや神輿部屋	碧梧桐	伊佐い波神社		○	
謡講に本堂を借る芭蕉かな	碧梧桐	宝厳寺			○
うそのやうな十六日桜咲きにけり	子規	十六日桜		○	
一輪は咲いて見せたる桜かな	虚子			○	
一枝に一輪十六日桜かな	碧梧桐			○	
薫風や裸の上に待つ影	子規	高濱	○	○	○
なまくさき漁村の月のおどりかな	子規				○
秋雨や繋ぎ並べし舟の	虚子				○
貝のつきしいわあらはるる汐干哉	子規	梅津寺濱	○	○	○
牡蠣殻や磯に久しき岩一つ	碧梧桐			○	○
菟蓐につつじの名あれ太山寺	子規	太山寺	○	○	○
に杉千年の御山かな	斎月				○
魚市に魚少なき余寒かな	子規	三津浜	○	○	
短夜のともし残るや魚市場	虚子			○	
初汐に待つ四五本の小島かな	子規	子住島		○	○
音たてて春の潮流れけり	虚子			○	○
義農名は作兵衛と申し麦の秋	虚子	松前		○	
茸狩や浅山々女連れ	子規	平井	○	○	○
土の香や松茸山の通り雨	虚子	上林		○	○
若鮎の二手になりて上りけり	子規	出合	○	○	○
稲むしろ出合は川の広さかな	虚子				○
茸狩やきのふの雨の小松山	碧梧桐	吉藤山		○	○

위의 <표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키의 하이쿠 일색이었던 1909년판과 달리 1913년의 보증개정판에서 교시와 헤키고도의 하이쿠가 실리게 된 배경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1909년판에서 교시 스스로가 교열을 맡았기 때문에 자신의 하이쿠를 넣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 1902년에 사망한 시키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시키의 작품을 안내서에 남기려는 시도를 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반면, 1913년에는 협회가 기획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현직 하이쿠 시인들의 작품을 포함하면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1913년판은 기존 1909년판에 게재된 시키의 하이쿠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교시, 헤키고도 등 다른 하이쿠 시인들의 작품을 보충했다. 보증개정판은 새롭게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서술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던 반면 하이쿠에 관해서는 크게 개편을 시도했다. 그만큼 안내서에 게재할 하이쿠에 관해서는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2>에서 이시테지(石手寺)를 읊은 하이쿠를 보면, 1909년판 『마쓰야마안내』에는 시키의 하이쿠 1구가 실려있으나 1913년판에는 1909년판에 실린 시키의 하이쿠와 다른 하이쿠를 1구 게재하고, 이어서 교시의 하이쿠 한 구 총 2구를 실었다. 또한 같은 해 출판된 『이요철도안내』에는 이시테지를 읊은 하이쿠로 시키의 하이쿠 2구와 교시의 하이쿠 3구 총 5구를 실었다. 전체적으로 명소로 소개되는 장소는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소개하는 하이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3년에 간행된 두 안내서는 마사오카 시키라는 한 고인의 하이쿠가 아닌 당시 도쿄에서 활동하는 마쓰야마 출신 유명 작가의 하이쿠를 게재함으로써, 시키의 고향 이상의 하이쿠 작가를 배출하는 하이쿠의 성지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때 일반적인 와카(和歌)가 아닌 오로지 하이쿠만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마쓰야마의 지역성을 단순한 문학도시가 아닌 하이쿠라는 근대 문예의 발생지로 각인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마쓰야마 출신으로 도쿄에서 문필 활동하고 있었던 교시를 비롯해 당시 문인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직접 안내서를 집필하고 시내 명소와 관련된 하이쿠를 소개함으로써 마쓰야마의 안내서는 지리적인 내용과 단순한 서술로 구성된 여타 안내서와 달리 문학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한 특색 있는 도시로 그려졌다.

그러나 그 이후 1918년에 마쓰야마상공회(松山商工會)에서 출판한 『마쓰야마(まつやま)』는 마쓰야마성과 도고온천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기존에 간행된 안내서처럼 하이쿠를 중간에 게재하지 않고, 오히려 죠카마치라는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상공회라는 출판 주체의 차이도 있으나 1920년대 이후 출판된 안내서처럼 대중적인 안내서를 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1920년~1930년대

1918년 마쓰야마상공회에서 출판한 『마쓰야마』 이후 1920~30년대 마쓰야마에서 간행된

안내서는 필자가 조사한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이 시기 철도성(鐵道省)이나 오사카상선(大阪商船) 등 마쓰야마 외 타 지역에서 간행된 안내서들을 몇 종류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도고와 마쓰야마(道後と松山)』(1931)의 앞면과 뒷면

위 <그림1>의 안내서는 1931년 오사카상선에서 제작된 리플렛 형태의 안내서이다. 표지에는 마쓰야마성이 그려져 있으며 조감도는 성을 중심으로 주변 명승지를 표시했다. 뒷면은 오사카 상선이 운영하는 배를 타고 세토나йка이를 지나 도고온천과 마쓰야마를 여행하는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다카하마 항을 비롯해 도고온천, 이시테지, 마쓰야마성 등 17곳의 명승지가 소개되어 있다. 표지의 『도고와 마쓰야마(道後と松山)』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쓰야마에 대해서는 도고온천 주변 관광지의 하나로, ‘에히메현의 현청소재지이자 이요상공업의 중심지’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이며, 안내서에 실린 사진은 대체로 세토나йка이를 상징하는 바다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1933년 철도성에서 간행된 『경관을 찾아서(景観を尋ねて)』라는 안내서 속에는 「마쓰야마와 도고(松山と道後)」라는 제목으로, “마쓰야마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죠카마치로, ‘죠카마치다운’ 느낌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명소로

오카이도(大街道)라는 시내 변화가를, 명물로 이요히모(伊豫紐)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철도 성과 오사카상선 등 정부나 기업에서 출판한 안내서는 마쓰야마보다 도고온천을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고 마쓰야마는 부가적으로 소개했다.

안내서 속 도고온천은 소세키가 마쓰야마 중학교 교사였을 때 자주 다닌 곳으로 소설 『붓짹』에도 등장한다고 소개된다. 소세키와 연관을 지어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세키의 소설 배경지일 뿐 마쓰야마가 문학도시라는 것과는 무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상선이나 철도성에서는 첫째로 선박과 철도 이용을 목적으로 안내서를 제작했기 때문에, 시키가 아닌 전국적으로 대중적이고 명성이 높은 소세키와 그의 소설 붓짹을 언급한 것이며, 마쓰야마보다는 유명세를 가진 온천을 중심으로 소개했던 것이다. 1930년대 초반 관광여행이 대중화되어갔던 시기에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된 마쓰야마의 지리적 심상은 마쓰야마성을 랜드마크로 하는 죠카마치 도시이자 도고온천이 있는 온천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1940년대

본격적으로 마쓰야마를 문학도시 ‘하이토’로 표상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전후로 보인다. 1940년 에히메현 관광협회에서 출판한 『관광의 에히메(觀光の愛媛)』는 과거 발행된 안내서 서술의 전통성을 계승하듯이, 명승지 사진과 함께 하이쿠를 대거 게재했다. 본 안내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가시마세이(鹿島生)이라는 필명으로 편집 후기를 짧게 서술하고 있을 뿐, 필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¹²⁾

이 안내서의 첫 페이지에는 <헨로교(遍路行)>이라고 제목을 붙인 헨로 수행을 하는 승려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시키의 하이쿠가 실려있다. 이어서 <마쓰야마>, <마쓰야마성> 등의 사진과 함께 하이쿠가 하나씩 소개된다. 이처럼 장소와 관련된 하이쿠를 기재하는 안내서는 1910년대 제작된 안내서와 명소의 소개 방식이 비슷한데, 기존에 발간된 지역 안내서의 특징을 답습하면서 사진이라는 새로운 요소와 함께 지역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책 말미에는 「하이쿠와 이요(俳句と伊豫)」라는 제목으로 시키, 교시 헤키고도, 세이게쓰를 비롯해 소세키의 하이쿠까지 다양한 시인들의 하이쿠 114구를 마쓰야마 내 27개의 명소별로 나열하고, “이요는 하이쿠의 성지, 그리고 하이쿠는 이요의 풍토병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안내서 속 명승지를 보면 기존과 다른 인문학적 명소가 새롭게 포함되어 있는데 마사오카

12) 가시마(鹿島)는 마쓰야마시에 속한 작은 섬으로, 편집자인 가시마세이(鹿島生)는 한자 그대로 가시마에서 태어난 인물로 추정된다.

시키가 거주한 시키당(子規堂)이 바로 그것이다. 시키당은 시키의 사후에 그가 17세까지 살았던 집을 가문의 묘를 관리하는 사찰인 쇼슈지(正宗寺) 경내로 옮겨 복원한 것으로 1925년에 지어졌다. 이후 1933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재건되었는데, 시키가 살던 장소가 마쓰야마의 관광자원으로 소개되는 것은 재건 이후로 보인다. 안내서에는 시키당을 “배성(俳聖) 시키의 유품을 전하는 시키당은 마쓰야마시 스에히로초(末光町) 쇼슈지의 경내에 있는 매발탑(埋髮塔)과 함께 하이토 마쓰야마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매발탑은 1904년에 쇼슈지의 주지 스님이 시키의 3주기를 맞이하여 사찰 내에 있는 마사오카 가문의 묘 옆에 시키의 머리카락을 매장하고 세운 비석이다. 쇼슈지 내 매발탑과 시키당은 시키의 주변 인물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념적 장소인 셈이다.

안내서에 소개된 1일 관광 모델코스를 보면, 마쓰야마성-시키와 소세키의 유적-시키의 매발탑-이시테가와 공원-이시테자-도고온천의 순서로 시키와 소세키의 유적을 마쓰야마 시내의 주요 관광 명소로 선택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안내서에 ‘하이토’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누가 어느 시기에 ‘하이토’라는 용어를 썼는지 알 수 없으나 늦어도 1940년에는 ‘하이토’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은 확실하다. 이렇게 봤을 때 마쓰야마가 본격적으로 시키나 소세키와 같은 문인들의 흔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문학도시 ‘하이토’ 혹은 ‘하이쿠의 성지’로 소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 이후 1940년대 전후로 판단된다.

1900년대로부터 마쓰야마 출신 문인들에 의해 집필된 문학적 안내서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마쓰야마를 하이쿠의 도시로 표상하려는 지역 문인의 노력이 문학도시 마쓰야마의 이미지 형성과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문학도시라는 성격은 하이쿠를 수집하고 유적을 정비하는 해당 지역의 노력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3.2. 전후 문학도시 마쓰야마의 계승과 확대

1940년대 하이쿠의 성지이자 문학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마쓰야마는 1945년 여러 번의 공습을 받고 시내는 초토화되었다.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인해 시 전체 가옥 수의 55%에 해당하는 1만 4300호가 불탔는데¹³⁾ 이때 시키당도 소실된다. 그러나 1946년 시키당은 곧바로 재건되었고, 1948년에는 에히메현의 ‘기념물·사적’으로 지정된다. 시키당은 에히메현이 지정한 현지정 문화재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지정되었는데, 근대 이후 문화

13) 總務省 홈페이지 중 「松山市における戦災の状況(愛媛県)」에서 인용

(출처: http://www.soumu.go.jp/main_sosiki/daijinkanbou/sensai/situation/state/shikoku_03.html, 검색일: 2018년 8월 10일)

재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 에도 시대 하이쿠 시인 구리타 조도(栗田標堂)가 살았던 고신안(庚申庵), 가마쿠라 시대 승려 잇펜쇼닌(一遍上人)의 탄생지도 시키당이 사적으로 지정된 다음 해 지정되었으며, 마쓰야마성 2대 성주인 마쓰다이라 사다유키(松平定行)의 영묘(靈廟)도 그것보다 늦게 사적으로 지정되었다.¹⁴⁾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전후 마쓰야마에서는 시키당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주요 인문학적 자산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근대문학에 있어 시키가 미쳤던 영향력과 평가에 비한다면, 마쓰야마에서의 시키의 우상화는 일찍이 시작되었다. 시키는 사후 30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지역 안내서에 이미 배성으로 소개되었는데, 사실상 일본문학사에서 배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마쓰오 바쇼(松尾芭蕉)를 지칭한다.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바쇼가 하이카이(俳諧)사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은 18세기 후반의 바쇼부흥운동(芭蕉復興運動)이 일어난 시기로, 바쇼의 신격화는 그 후에 시작된다. 말하자면 바쇼의 문학적 위상은 그의 사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평가된 것이다. 그 배경으로는 부촌(蕪村)을 중심으로 한 바쇼문학의 시인들이 쇼몬일파(蕉門一派)를 확고히 형성한 것이 큰 요인으로 뽑힌다. 그러나 바쇼를 더욱 신격화하면서 문학 활동의 규범으로 위치시킨 것은 메이지 시대로 당시 형성된 「하이카이 메이린코샤(俳諧明倫講社)」, 「하이카이 교린메이사(俳諧教林盟社)」 등의 결사들에 의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바쇼의 우상화에 일침을 가한 것이 시키였다. 그는 바쇼를 신격화시키려는 하이단과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결사를 비판했다.¹⁵⁾ 그러나 시키의 문하 하이단 시인들은 시키를 바쇼보다 더 빠른 그의 사후 30년 시점에서 우상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후 마쓰야마 시키가 문학가로 재평가받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렸다. 1950년대 이후 『일본문학전집』이 대형출판사에서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시키는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알려지게 된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에 시키당이 바로 복구되고 마쓰야마가 하이토의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교시와 야나기하라 교쿠도(柳原極堂, 이하 교쿠도) 등 시키와 가깝게 지낸 문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951년 마쓰야마에서 시키 50년제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교시와 『호토토기스』를 창간한 교쿠도 등이 직접 행사에 참여했다. 1910년대 마쓰야마 시내의 명소를 읊은 하이쿠를 수집한 교시는 마쓰야마를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50년제에 참석하여 직접 강연을 펼쳤다. 그는 전후에도 시키를 마쓰야마의 배성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14) 新藤茂雄(1964)『中四國の文化財と觀光』全國民藝品交流研究所, pp.109-110

15) ハルオ・シラネ, 鈴木登美編(1999)『創造された古典』新曜社, pp.375-383

16) 남상욱(2019)「학의 장소, 장소의 문학 - '시키기념박물관'과 '언덕 위의 구름 뮤지엄'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69, 동아시아일본학회, p.58

한편으로 교쿠도는 마쓰야마에 살면서 직접적으로 시키의 이상화를 주도했다. 시키와 마쓰야마중학교 동창이자 시키한테 하이쿠를 배운 시인으로, 시키의 사후에는 그의 구비를 세우고 시키당을 건립, 하이쿠 작품들을 수집하는 일에 앞장섰다. 마쓰야마에서 신문 기자·시의원·신문사 사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을 봤을 때, 전후 하이토 마쓰야마의 이미지를 확대해나가는데 그가 단순히 시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은 짐작된다. 메이지 시대 활동했던 하이단과 시인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시키가 이끌었던 마쓰야마 중심의 하이단이 유독 크게 전파된 것은 그의 스승과 제자 간의 중요시하는 장르였던 배경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¹⁷⁾ 이처럼 하이쿠의 성지, 시키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는 전후에도 시키의 제자,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확대되었다.

교시, 교쿠도의 사후에도 마쓰야마에서는 1967년 ‘시키, 소세키, 교쿠도 탄생 백년제’를 개최했으며, 1973년에는 ‘교시·헤키고도 생탄 백년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 출신 하이쿠 시인들을 둘러싼 행사를 때마다 개최했다. 1967년의 백년제에서는 전국 하이쿠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다음 해 하이쿠를 자유롭게 투고하는 하이쿠 포스트(俳句ポスト)를 마쓰야마성에 처음으로 설치했다.¹⁸⁾ 이처럼 행사에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하이쿠의 성지이자, 문학도시로서의 마쓰야마의 역사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왔다.

1981년에는 시키기념박물관(子規記念博物館)이 개관하는데 고도성장이 끝나가던 1975년 마쓰야마 시장으로 당선된 나카무라 도키오(中村時雄)에 의해 기획되어 추진되었다. 『마쓰야마시사(松山市史)』에 따르면, 당시 시키 기념관의 건설을 현과 시가 동시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이 시에 양보하는 형태로 1979년 3월에 착공했다고 한다.¹⁹⁾ 문학계 박물관으로 개관된 시키기념박물관은 시키와 관련된 전시 외에도 하이쿠 교실, 시민 하이쿠 대회 등 주민 참여형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면서 시키의 고향 마쓰야마, 그리고 ‘하이토’로서의 장소성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에도 마쓰야마시에서는 하이쿠 포스트를 지속적으로 늘려갔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하이쿠 포스트라는 명칭을 하이토 마쓰야마 하이쿠 포스트(俳都松山俳句ポスト)로 변경하고 3개월에 한 번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는 시대에 맞게 하이쿠 포스트의 온라인 투고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등학생들의 학교 대항 하이쿠 대회인 하이쿠고시엔(俳句甲子園)을 개최하는 등 하이쿠를 둘러싼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²⁰⁾ 2017년

17) 青木亮人(2004)『明治俳壇と日露戦争--旧派、秋声会、日本派を中心に』『同志社国文学』(61), 同志社大学国文学会, p.395

18) 愛媛県史(1984)『愛媛県史』<文学>, pp.10-14

19) 松山市史編纂委員会(1995)『松山市史第4巻』松山市, p.407

20) 하이쿠코시엔은 1998년에 제1회를 개최한 이후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제23회를 개최했다.

에는 시키와 소세키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마쓰야마에서 세계로 그리고 미래로(松山から世界へそして未来へ)>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말하자면, ‘하이토’ 마쓰야마의 역사는 마쓰야마 출신 문인들에 의해 창출된 이후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 재생산되어왔다는 것이 문학도시 ‘하이토’ 마쓰야마 형성 과정의 특징이며, 무엇보다 하이쿠를 과거의 작품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도 하이쿠 창작과 관련된 교육과 행사를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시대와 함께 나아가는 ‘하이토’를 실현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한 계승이 아닌 확대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근대에 형성된 풍경 체계 속에서 당시 발견된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이 현재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마쓰야마가 문학도시 ‘하이토’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 과정을 통시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근대 발간된 안내서를 통해 하이쿠의 도시로 창출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나아가 전후 ‘하이토’의 장소성을 어떻게 계승해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근대에 간행된 안내서는 지지나 기행문류와 달리 기록물의 종류 자체가 근대 관광여행이 시작된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작되고 점차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가이드북이라는 텍스트 틀에 맞춰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이때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안내서는 지역을 설명하는 기본 틀이 되었고, 이후 발간되는 안내서들은 대부분 기존 안내서의 설명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전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근대 안내서에 어느 시점에서 누구에 의해 문학도시 마쓰야마로 소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논고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마쓰야마를 소개한 안내서와 전후 마쓰야마의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쓰야마의 지역 안내서는 1900년대 중반부터 주로 하이쿠를 창작하는 시인들이 중심이 되어 집필되었는데, 안내서 속 명소마다 해당 장소와 관련된 하이쿠를 게재하면서 마쓰야마가 근대 문예 하이쿠의 탄생지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애초에 하이쿠 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이쿠가 수집되고 안내서가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강한 안내서가 완성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마쓰야마가 ‘하이토’로 표상되는 것은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즈음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과거 마쓰야마 명소 목록에 없었던 시키나 소세키와 관련된 유적지가 명소로

포함되고 있으며 ‘하이토’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

전후에도 마쓰야마는 ‘하이토’의 이미지를 계승 확대시켰다. 전쟁 직후 곧바로 소실된 시키당을 재건하고 이를 사적으로 지정했으며, 시키의 문인이었던 교쿠도, 교시 등이 중심이 되어 시키를 우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마쓰야마에 사는 시키 문인들이 하이쿠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시비를 짓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마쓰야마는 ‘하이토’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시키기념박물관을 건립, 1990년대에는 하이쿠 창작과 관련된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문학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어느 한 시점이 아닌 시대를 거쳐 지역 문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한편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뒷받쳐 준 결과 문학도시로서의 장소성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마쓰야마가 ‘하이토’로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키 중심으로 언급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마쓰야마가 문학도시로 발전하는데 소세키의 소설 붓장, 그리고 시키와 소세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두 인물의 관련성, 붓장과 도고온천 등 마쓰야마에는 소세키와 관련된 인문학적 관광자원이 적지 않다. 현재도 마쓰야마 시내에 붓장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소설가 소세키와 소설 붓장이 없으면 마쓰야마가 이만큼 관광지로 대중적 인지도를 가질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성과 하이쿠라는 인문학적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마쓰야마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은 차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

남상욱(2019)「문학의 장소, 장소의 문학 - ‘시키기념박물관’과 ‘언덕 위의 구름 뮤지엄’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연구』69, 동아시아일본학회, pp.51-74

青木亮人(2004)「明治俳壇と日露戦争--旧派、秋声会、日本派を中心に」『同志社国文学』(61), 同志社大学国文学会, pp.387-398

新藤茂雄(1964)『中四國の文化財と観光』全國民藝品交流研究所, pp.109-119

愛媛県観光協會(1940)『観光の愛媛』, pp.1-46

愛媛県史(1984)『愛媛県史』地誌 第六節観光・文化施設

(<https://www.i-manabi.jp/system/regionals/regionals/ecode:2/36/contents>)

大阪商船(1931)『道後と松山』

高木博志編(2013)『近代日本の歴史都市-古都和城下町』思文閣出版, pp.3-26

虚子碧梧桐生誕百年祭實行委員會(1975.4)『復刻松山案内(明治四二年版)-補遺松山案内(大正二年版)伊豫鉄道案内(沿革)』松山市教育委員會, pp.1-135

鐵道省(1933)『景觀を尋ねて』, pp.93-94

- 西田正憲(1994)「明治後期における瀬戸内海の近代的風景の発見と定着」『ランドスケープ研究』58(2), 日本造園学会, pp.212-217
- 野中勝利(2006)「明治初期に城址で開催された博覧会に関する研究」『都市計画論文集』41(3), 日本都市計画學會, pp.911-916
- 橋爪紳也(2014)『瀬戸内海モダニズム』周遊芸術新聞社, pp.17-391
- ハルオ・シラネ, 鈴木登美編(1999)『創造された古典』新曜社, pp.366-392
- 松山商工會編(1918)『まつやま』松山商工會
- 松山市史編集委員會(1995)『松山市史第三卷』松山市
- 松山市史編集委員會(1995)『松山市史第四卷』松山市
- 松本市홈페이지: <https://www.city.matsuyama.chime.jp/>

논문투고일 : 2020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21년 02월 04일
2차 수정일 : 2021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17일

〈要旨〉

문학도시 ‘하이토(俳都)’ 마쓰야마(松山)의 형성 과정에 관한 고찰

문순희

본고는 근대에 형성된 풍경 체계 속에서 당시 발견된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이 현재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본 에히메현(愛媛縣) 마쓰야마(松山)가 문학도시 하이토(俳都)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 과정을 통시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근대 발간된 안내서를 통해 하이쿠의 도시로 창출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나아가 전후 ‘하이토’의 장소성을 어떻게 계승해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쓰야마의 지역 안내서는 1900년대 중반부터 주로 하이쿠를 창작하는 시인들이 중심이 되어 집필되었는데, 안내서 속 명소마다 해당 장소와 관련된 하이쿠를 게재하면서 마쓰야마가 근대 문예 하이쿠의 탄생지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애초에 하이쿠 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이쿠가 수집되고 안내서가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강한 안내서가 완성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마쓰야마가 ‘하이토’로 표상되는 것은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즈음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과거 마쓰야마 명소 목록에 없었던 시키나 소세키와 관련된 유적지가 명소로 포함되고 있으며 ‘하이토’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

전후에도 마쓰야마는 ‘하이토’의 이미지를 계승 확대시켰다. 전쟁 직후 곧바로 소실된 시키당을 재건하고 이를 사적으로 지정했으며, 시키의 문인이었던 교쿠도, 교시 등이 중심이 되어 시키를 우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마쓰야마에 사는 시키 문인들이 하이쿠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시비를 짓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마쓰야마는 ‘하이토’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시키기념박물관을 건립, 1990년대에는 하이쿠 창작과 관련된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문학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어느 한 시점이 아닌 시대를 거쳐 지역 문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한편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뒷받쳐 준 결과 문학도시로서의 장소성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History of Literary City Haito Matsuyama

Moon, Soon-Hee

The present paper notes that local places of humanities discovered under the landscape framework during modern times are still actively used as tourism resources today, and examines how Matsuyama established its image as a city of literature (俳都: Haiku-city) among other small cities across Japan.

As the hot spring town named Dōgo Onsen is located in the suburb of Matsuyama, and the city was introduced for its popularity in the tour guidebooks that had been published nationwide since the early 1900s. However, these guidebooks introduced Matsuyama simply as a city near Dōgo Onsen, and Matsuyama was nothing but additional information for Dōgo Onsen. It was the late 1900s that Matsuyama published its own local guidebooks and began to express its local characteristics. The guidebooks that introduced Matsuyama were written by Haiku authors (俳人: Haijin) in Haidan since the mid-1900s. The guidebooks included Haiku related to each attraction, which strongly reminded that Matsuyama is the birthplace of modern literature Haiku. In the 1910s when local guidebooks were published across many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Haiku was collected by a network of Haiku authors in Matsuyama and organized by place and figure. Given that Matsuyama's local guidebooks were written and described by those who created Haiku themselves, it was no surprise that the completed local guidebooks had strong literature value. During the 1920-30s, no guidebook published by Matsuyama was found, and Matsuyama was represented simply as a city of Jōkamachi or hot spring during this period where there was no local guidebook. As seen in Matsuyama's guidebooks in the 1940s, guidebooks including many Haiku were newly written and published, transforming the image of Matsuyama from the city of history Jōkamachi into the city of literature Haito. By introducing the city in connection with Shiki and Sōseki, two of the greatest authors in modern Japanese literature, the guidebooks further reinforced Matsuyama's image as the city of literature.